

‘함께 점검하는 오늘, 안전한 내일’ 국민과 함께 집중안전점검 추진

- 항만·여객선 등 해양수산시설 869개소 대상 점검, 일반 국민·전문가 등 참여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4월 20일(월)부터 6월 19일(금)까지 두 달간 항만·어항시설, 여객선, 여객터미널, 수산물도매시장, 등대해양문화공간, 청사시설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해양수산시설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2조의3에 따라 재난 예방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정부와 국민이 함께하는 점검

이번 점검에서는 일반 국민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점검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드론, 비파괴 장치, 열화상 카메라 등 전문 장비를 활용하여 평소 확인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까지도 상세히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여객선과 여객선 터미널, 해양박물관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작년 8월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해양수산분야 잠재재난 발굴체계*’와 병행하여 이용객과 시설 운영요원의 현장 의견을 충실히 들어 해양수산시설 분야에 잠재된 안전 위해 요인을 발굴할 예정이다.

* 해양수산 현장 곳곳에 숨어있는 위험을 찾아내고, 재난으로 확대되기 전에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재난관리 체계

아울러, 이번 점검에서는 작년 말에 개칭한 해양수산부 부산 청사의 통신·소방 등 주요 설비와 대피로 확보 여부 등에 대한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분야별 자체 점검표를 활용하여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점검 중 발견한 위험요인은 위험도를 평가하여 등급에 따라 보수·보강 또는 정밀안전 진단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그 결과는 향후 행정안전부 ‘안전모아 진단모아 (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 시스템)’에 공개된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집중안전점검은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이 함께하는 안전관리 활동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라며, “작은 위험 요소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반드시 개선하여 더욱 안전한 해양수산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총괄>	해사안전국 해사안전관리과	책임자	과 장	김인수 (051-773-5850)
		담당자	사무관	정소희 (051-773-5857)
<청사시설>	운영지원과	책임자	과 장	황성오 (051-773-5050)
		담당자	사무관	이광호 (051-773-5718)
<박물관>	해양정책관 해양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상길 (051-773-5220)
		담당자	사무관	변성빈 (051-773-5229)
<자원관>	해양정책관 해양수산생명자원과	책임자	과 장	이인자 (051-773-5670)
		담당자	사무관	장기봉 (051-773-5671)
<수산물도매시장>	수산정책관 유통정책과	책임자	과 장	문미희 (051-773-5440)
		담당자	사무관	최광진 (051-773-5443)
<뉴시어선·유어장>	어업자원정책관 수산자원정책과	책임자	과 장	강동양 (051-773-5530)
		담당자	사무관	백하림 (051-773-5538)
<국가어항>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어항과	책임자	과 장	지정훈 (051-773-5650)
		담당자	사무관	윤성환 (051-773-5657)
<국제여객터미널>	해운물류국 해운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원배 (051-773-5120)
		담당자	사무관	명수한 (051-773-5718)
<연안여객선>	해운물류국 연안해운과	책임자	과 장	심상철 (051-773-5730)
		담당자	사무관	김근령 (051-773-5737)
		담당자	사무관	김희현 (051-773-5243)
<위험물하역시설>	해운물류국 항만안전보안과	책임자	과 장	한지웅 (051-773-5790)
		담당자	사무관	이상훈 (051-773-5783)
<국제여객선>	해사안전국 해사안전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민중 (051-773-5810)
		담당자	사무관	이종호 (051-773-5845)
<등대문화공간>	해사안전국 항행정보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형준 (051-773-5870)
		담당자	사무관	이철희 (051-773-5874)
<항만시설>	항만국 항만기술안전과	책임자	과 장	손원권 (051-773-5950)
		담당자	사무관	권유정 (051-773-5972)